

한국불교 '복발가꾸기' 시방세계로 확산

세상을 향한 나눔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했던 부처님의 뜻과도 일치한다. 결국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글로벌 시대가 말하는 요즘 불교의 자비나눔도 제 3세계 국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을 뻗치고 있다.

10여년 안팎의 시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더프라미스의 미얀마 아레요아 학교 학생들이 색칠동화책을 전달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지금까지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 교육사업 식수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 단체로는 JTS(이사장 범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더프라미스(이사장 범등)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999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한 JTS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와 북한을 비롯해 >필리핀 >민다나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사업 >의료지원 >마을개발사업 >재난시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지원사업은 종교간 갈등으로 가장 열악한 민다나오 지역의 원주민, 무슬림, 장애자 등 소외 계층을 돕고 있다.

JTS는 이들을 위해 학교건립, 학용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 마을의 자립을 위해 농업지원사업과 마을 전통 문화 보존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기숙사도 건립했다.

JTS 최기진 팀장은 "사전조사를 통해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주민회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마을 개발사업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집과 학교 건립 등을 전개해왔다. 이밖에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 등에 구호대를 파견 재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오지에 학교 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는 JTS는 현재까지 15개 학교의 준공을 마쳤다. 또한 기존의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마을지원 >학교지원 사업 등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0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오성탄 씨는

"2004년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 사업은 현재까지 우물 1688기가 완공되었다. 앞으로 >식수지원 >지역개발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미얀마에서도 '생명의 물'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 전파를 목표로 한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에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설립, 빈곤아동 복지와 교육사업 의료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정희 로터스월드 홍보 팀장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건립 >화장실 지어주기 >구급차 보급 및 위생교육 >도서관 지원 >현직 교사원 네트워크 사업 >직업훈련을 위한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운영 등을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로터스월드는 앞으로도 교육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더프라미스는 2008년 창립해 인도 미얀마 동티모르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 >학교 건립 >동티모르 수로 사업 >마을 개발 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더프라미

스 유보미 국제사업 팀장은 "내년에는 교육 지원 사업과 마을 개발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얀마 학교에 태양력 등을 지원하고 화장실 보급에도 힘을 예정하며 기존 수로 사업 지원도 꾸준히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연구사업을 위해 활동가 교육에도 힘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가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비를 나르는데' (대표 남지심, 이하 수래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땀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며 지원사업을 시작한 수래꾼은 3년간 학교 운영지원과 14개의 우물을 파서 기증했다. 수래꾼은 현재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건립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국장 오시환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이 안타까워

교육·의료·식수지원 등 사업다양 지역 주민 요구 수용 함께 작업해야 '자립의지 심어주는 것' 바람직

국제구호 광범위한 전문영역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 등 이웃

종교에 비해 후발주자로 시작한 교계 국제구호단체는 빈약한 인력과 재정 문제, 홍보 부족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남정덕 사무국장은 "불교계 국제개발구호 사업은 개신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러다보니 불자들이라도 불교계 구호단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문 활동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불교계 전반에 홍보활동과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온정만 가지고 무작정 국제구호 사업을 전개하는 관행도 지적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의 어려움을 묵과하고 무작정 사업을 펼쳤다가 어려움에닥치면 사업을 놓아 버리는 경우다. 국제구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우연히 스님이나 신도들이 성지순례나 관광차 제 3세계 국가를 방문했다가 딱한 사정을 보고 학교나 고아원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하지만 이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현지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 관계자와 오해가 생겨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설 건립이 된다고 해도 지속적 관리가 어려워 결국에는 사업에 손을 떼고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제구호 활동의 실패 사례를 전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이웃 종교 단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충분히 안다. 하지만 국제구호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런 온정의 마음이 있다면 전문 기관에 맡겨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로터스월드 민정희 팀장은 "국제구호는 광범위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적인 일이다. 각 국의 문화와 경제 사정 등을 제대로 알

아야 한다. 우리가 헌웃을 모아 제 3세계 국가에 대량으로 웃을 보내 준다면 누구는 웃을 공짜로 입지만 현지의 공장은 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결국 이 사업은 온정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며 활동가들 모두가 전문성을 갖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업 시작부터 진행까지 모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다. JTS 박진아 대표는 "시설을 건립할 때 무작정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지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JTS는 시설을 건립할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고 그들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면 우리 측에서 건물의 자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시설은 국가나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업에 착수한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전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역시 국제구호사업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묘장 스님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미래지속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국제구호 사업의 목표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동가와 봉사자들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제구호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 단체

단체명	구호사업내용	전화번호
JTS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의료·마을개발사업	(02)587-8756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서 식수·교육·의료·지역개발사업	(02)3409-0303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의료·빈곤아동복지·의료지원	(02)725-4277
더프라미스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서 교육·의료·의료지원·수로사업·마을개발사업	(02)735-3119
자비를나르는 수래꾼	캄보디아 교육사업 및 우물 사업	(010)2470-2327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몽골 라오스 교육지원	(02)723-5101
나누우리	라오스 교육지원 사업	(02)734-7756
진각종	스리랑카·UNICEF·네이버·네이버·학교사업 지원	(02)942-0144
108산사회	몰비니 학교 지원 사업	(02)900-0193
천호불교 문화재단	캄보디아 교육지원	(010)2623-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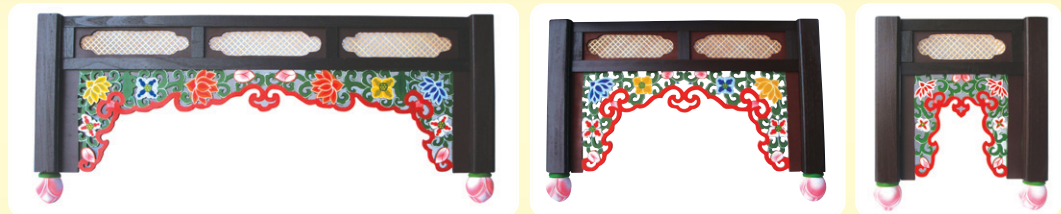
지구촌공생회의 케냐 엔요노르 영화초등학교 준공기념식에서 이사장 월주 스님이 식수하는 장면.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침향 大



침향 小

■ 침향(沈香) (원산지: 라오스)
세계 3대향의 향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침향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정신을 맑게해 집중력을 높게 해 줍니다.
• 침향 小 50,000원
• 침향 大 100,000원

불기 2556(2012)년 봉축 특별 할인 판매

> 연꽃 차걸이 특별판매 <

봉축을 맞아 불자님들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 연꽃 차걸이1 / 가격 3,000원
100개 이상 구매시 특별 할인합니다.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운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연꽃 차걸이2 (4색) / 가격 2,500원

고 전 상 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주문의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